



『학회소식』

한국공법학회(회장 박인수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박인수 교수)는 지난 2010. 10. 12.(금) 13:30 ~ 18:00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학교육과 공법학의 실용화』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제158회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 및 발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공법능력시험제도를 통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의 공법 실용화방안: 김성배 교수(대구대)
토론에는 김재광 교수(선문대), 이종근 교수(동아대)가 참여하였다.
- 헌법교육의 과제와 방법: 오동석 교수(아주대)
토론에는 노기호 교수(군산대), 권혜령 박사(이화여대)가 참여하였다.
- 법치행정과 지방공무원의 공법교육: 문상덕 교수(서울시립대)
토론에는 강인옥 교수(감사원 감사교육원), 김기진 교수(명지대)가 참여하였다.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공법교육의 내용과 방법: 박종보 교수(한양대)
토론에는 황도수 교수(건국대), 최인호 교수(충남대)가 참여하였다.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조홍석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조홍석 교수)는 오는 2010. 11. 26.(금) 13:30 ~ 18:30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58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주제 및 발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체류 및 난민·무국적자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운 박사(법제연구원)
토론에는 전훈 교수(경북대), 김성인 사무처장 (난민인권센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경옥 교수(영산대)

토론에는 이기춘 교수(부산대), 김명룡 교수(창원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 결혼이민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명선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에는 김응규 교수(충북대),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공감)가 참여할 예정이다.
-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이희성 교수(원광대)
토론에는 이동훈 교수(세명대), 이달휴 교수(경북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15일(목) 14:00 -17:00 대한변협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렸던 이날 공청회에서는 합격자 인원과 과락 이외의 합격 기준점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과 같은 합격자 결정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21개월만에 가장 이슈가 되어 왔던 합격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이날의 공청회는 학계, 법조계, 학생, 로스쿨 준비생 모두에게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방법의 합리적 결정은 향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운영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이정환 변호사와 장재욱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정토론에는 방희선 동국대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사국장 겸 사법감시팀장, 김성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진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동 정』

한국법학교수회 제11대 회장선거

한국법학교수회는 오는 11월 26일(금)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제11대 회장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선거에는 현 회장인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관희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출마한다.

이번 회장선거에서는 로스쿨교육 정상화가 최대의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성

교수는 로스쿨 인가대학수와 총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10여 개 대학교에 로스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로스쿨의 유치에 성공한 대학교의 학생정원을 늘리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교수는 법학전공자의 로스쿨 교육기간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그는 “법대출신과 비법대출신을 똑같이 3년동안 교육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본처럼 법대출신은 교육과정을 2년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 부여에 대해서는 두 후보자가 입을 모았다. 성 교수는 “일정기간 근무한 부교수 이상의 법학교수들에게 변호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된 문제로 다시 입법화 되도록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행과 같은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소수나마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1987년 프랑스 파리2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9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교수는 1983년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84년부터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 일 수 고려대 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1월 10일 제12대 한국형사정책위원회장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3년.

김 신입원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 제12회에 합격하였으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